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 연구 :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Style of Mothers with Infants: The Mediating Effect of Parenting Efficacy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조교수 이주연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Joo-Yeon Lee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Parenting knowledge is regarded as an important variable influencing parenting styl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arenting knowledge of mothers with infants and analyzed how this knowledge influenced their parenting style. The mothers' parenting efficacy was included in the analysis as a mediator between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style. Three hundred and seventy-five mothers with infants completed questionnaires regarding parenting knowledge,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yl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others reported different scores in sub-categories of parenting knowledge, in which the highest scores were in knowledge about rearing behavior and the lowest were in the developmental process.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parenting knowledge scores according to the age, employment status, and educational level of subjects. Third, subjects with the more accurate parenting knowledge reported more positive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ing style. Lastly, parenting efficacy completely mediated between parenting knowledge and parenting style.

주제어(Key Words) : 양육지식(parenting knowledge), 양육행동(parenting style), 양육효능감(parenting efficacy), 매개효과(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Joo-Yeon Lee,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00 Yongbong-Dong, Buk-Gu, Gwangju, 500-757, Korea Tel: +82-62-530-1327 Fax: +82-62-530-1329 E-mail: idscot@chonnam.ac.kr

* 이 논문은 2006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영아기는 출생 이후 가장 빠른 속도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인간발달의 결정적 시기로서, 이후 발달에 초석이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 자녀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며, 특히 첫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은 매일 매일의 일상에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기르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을 제공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긍정적인 자녀양육태도와 관련이 있으며(Larsen & Juhasz, 1986), 긍정적인 아동발달에 영향을 준다(Miller, 1988). 따라서 양육자가 어느 정도의 양육지식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정확한 양육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양육지식이 어떻게 자녀양육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긍정적인 아동발달은 물론 부모역할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육지식은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지원해주고 그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기초자료가 되는 지식과 정보로 정의될 수 있다(Benasich & Brooks-Gunn, 1996). 학자들에 따라 양육지식에 대한 명명이나 측정을 위해 포함하는 조작적이고 구체적인 개념 정의는 다소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MacPhee(1984)는 발달연령에 따른 이상적 발달상태에 관한 지식과 바람직한 양육방식에 대한 지식, 발달의 개인차나 양방향적 특성과 같은 일반적인 발달원리에 관한 지식 등으로 양육지식을 개념화하였다. 한편, Goodnow(1988)는 양육지식(parental ideas)을 주양육자가 신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영역의 아동발달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로 정의하였고, Larsen과 Juhasz(1986)는 이러한 발달영역별로 양육지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개발한 양육지식 측정도구인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KCDI)는 국내의 연구에서도 자주 사용되었다(송연숙, 김영주, 2008; 윤형주, 조복희, 2004).

양육지식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국외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 소수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들 선행연구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연구경향으로, 부모들의 일반적인 양육지식 경향을 파악하고 가정환경변인과 인종, 학력, 연령 등과 같은 부모들의 배경 변인에 따른 양육지식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김정화, 1999; 윤형주, 조복희, 2004; 이근영, 장유경, 임현정, 2004; 이화자, 이승아, 김명희, 김영혜, 박남희, 2004; 최유리, 2006; Maloni,

1994; Parks & Smeriglio, 1983; Reich, 2005; Richman, Miller, & LeVine, 1992; Tamis-Lemonda, Chen, & Bornstein, 1998; Tamis-Lemonda, Shannon, & Spellman, 2002). 부모의 배경변인에 따른 양육지식 연구는 양육지식의 예측변인을 분석함으로써 부모교육 등을 통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연구대상을 포함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연구는, 부모의 배경변인 중 어머니의 학력과 가정의 경제수준이 그들의 양육지식에 대한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일관되게 보고한다. 즉,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정확한 양육지식을 가지며(김정화, 1999; 윤형주, 조복희, 2004; 이근영 외, 2004; 최유리, 2006; 홍순옥, 김성혜, 2008; Richman, et al., 1992; Reich, 2005), 가정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지식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Maloni, 1994; Tamis-Lemonda, et al., 1998; Tamis-Lemonda, et al., 2002). 그러나 연령변인이나 취업여부, 자녀수 등의 변인에 따른 양육지식의 차이는 연구마다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연령의 경우,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더 정확한 양육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이근영 외, 2004; 이화자 외, 2004)와 오히려 30대보다는 20대 어머니의 양육지식 수준이 높다는 연구(홍순옥, 김성혜, 2008) 등 전혀 상반된 결과를 보이기도 하며, 더불어 연령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연구도 있다(윤형주, 조복희, 2004; 최유리, 2006; Reich, 2005). 자녀수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지식을 조사한 연구들은 대개 양육경험의 양과 질이 양육지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Goodnow, 1988)에서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지식 수준도 높다고 보고하지만(이근영 외, 2004), 자녀수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도 있으며(윤형주, 조복희, 2004), 반대로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지식의 일부 영역에서 더 낮은 지식수준을 보인다는 연구도 있다(Reich, 2005).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는 직업이 없을 때 양육지식이 높은 경우도 있었고(홍순옥, 김성혜, 2008) 취업여부와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이근영 외, 2004; 최유리, 2006). 이처럼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른 양육지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는데 이는 각 연구마다 다소 상이한 개념의 양육지식을 측정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혹은 배경변인의 집단 구분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양육지식의 예측변인 혹은 관련변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육지식의 개념은 학자마다 그리고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양육지식에 관한 연구에 접근할 필요가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선행연구들이 주로 사용한 발달영역별 지식측정 척도와는 다른 개념의 지식측정 척도를 사용하여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에 대한 관련 선행변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양육지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또 다른 연구방향으로 양육지식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육지식에 관한 국내연구들은 2000년대 들어 일부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로 양육지식에 대한 예측변인과 일반적 경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양육지식이 실제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나 양육행동은 물론 양육스트레스나 양육효능감과 같은 양육관련 변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였으며(Larsen & Juhasz, 1986; Mann, Pearl, & Behle, 2004; Riley, Meinhardt, Nelson, Salisbury, & Winnett, 1997; Stevens, 1984), 나아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양육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Benasich & Brooks-Gunn, 1996). 이들 연구에 의하면, 양육지식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연령에 따른 적절한 발달양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함으로써 자녀의 발달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준거로 작용한다(Conrad, Gross, Fogg, & Ruchala, 1992; MacPhee, 1984; Miller, 1988; Seigel, 1986). 그리고 정확하고 높은 수준의 양육지식은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 및 유능감을 갖게 할 뿐 아니라(송연숙, 김영주, 2008), 각 발달연령 시기에 자녀에게 적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등 부모의 직접적인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윤형주, 조복희, 2004; AltmanKlein & Cordell, 1987; Hunt & Paraskewopulos, 1990; Ninio, 1979; Parks & Smeriglio, 1986; Stevens, 1984). 즉, 정확한 양육지식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더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도 보다 민감하고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육지식과 가정 내 양육환경의 관련성을 조사한 Stevens(1984)의 연구에 의하면, 수입과 교육수준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통제된 경우에도 정확한 양육지식을 가진 어머니는 그렇지 못한 어머니에 비해 자녀의 발달연령에 적합한 양육환경과 놀이감, 자극을 더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부모의 양육지식은 부모의 적절한 양육행동과 양육환경의 제공을 통해 궁극적으로 아동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험적 연구들은, 자녀의 발달수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긍정적 발달을 위한 환경을 마련해주는 부모의 능력이 영아의 긍정적 발달수행(Parks & Smeriglio, 1986), 자녀의 높은 인지능력(Bayley, 1969; Benasich & Brooks-Gunn, 1996; Hunt & Paraskewopulos, 1990) 및 낮은 행동문제(Benasich & Brooks-Gunn, 1996)와도 관계가 있다고 보고 한다.

이처럼 양육지식은 부모의 양육효능감, 양육태도,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며 아동발달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육지식에 대한 국내연구는 대개 양육지식의 전반적 경향이나 관련 변인과의 단순한 상관관계 등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양육지식의 영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연구들도 양육지식과 관련변인들과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정확히 양육지식이 양육행동과 어떤 경로로 관련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지식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양육관련 변인들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 대한 Bandura(1982, 1986)의 이론을 바탕으로 양육지식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양육효능감의 효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Bandura(1977)에 의해 제안된 자기효능감은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된다. 자기효능감 이론(Bandura, 1977, 1982)에 의하면, 자기효능감은 실제적인 '행동에 대한 기대'와는 구분되는 '능력에 대한 기대'이며 따라서 환경적인 상황보다는 개인의 기술이나 능력에 대한 '지각'과 더 깊은 관계가 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지식과 행동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데(Bandura, 1982, 1986),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특정행동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적 지지 등의 구성요소를 필요로 한다(Gecas, 1989).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개념과 특성은 부모의 양육에도 적용될 수 있다. 양육효능감, 부모역할 유능감, 또는 양육유능감 등의 용어로 사용되는 이 개념은 효율적으로 양육의 과업을 완수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의 믿음으로 정의되며(Teti & Gelfand, 1991), 부모가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한 부모 자신의 지각(Scheel & Riechman, 1998)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국내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을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으로서 부모역할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자녀양육과 연관된 어려움도 자신이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여기는 부모로서의 능력에 대한 지각(안지영, 2001)으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양육이라는 특정 행동의 성공적 수행에 대한 개인의 기대와 믿음이라 할 수 있으며, 자기효능감과 마찬가지로 특정 행동의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더불어 그러한 행동에 대한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

양육지식과 양육효능감의 관계는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Conrad, *et al.*(1992)의 연구에 의하면, 비록 양육지식과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어머니의 자신감 간에 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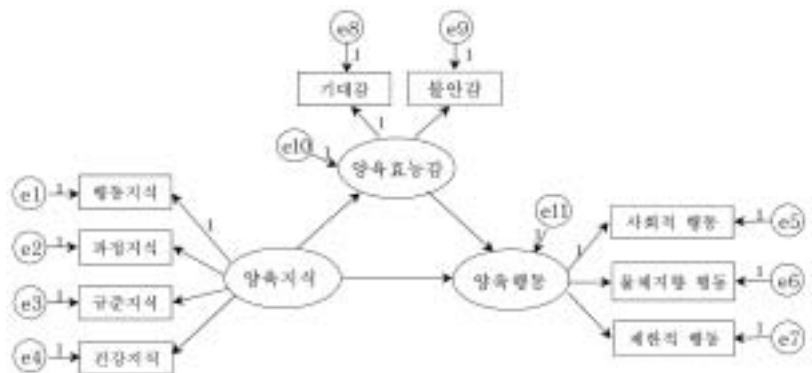
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집단의 경우 양육지식이 많을수록 더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연구에서도 신생아 부모의 구체적인 양육지식은 그들의 양육 자신감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화자 외, 2004). 또한 양육지식은 양육효능감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써(송연숙, 김영주, 2008; 안지영, 2001),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특히 유능감과는 정적관계를 불안감과는 부적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 된 바 있다(이영환, 오미연, 2006).

부모의 양육지식과 양육효능감 사이의 관계는 양육효능감의 선행변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취업여부, 자녀양육 경험, 자녀연령 등 다양한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Phillips, 1987). 이 중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은 그들의 양육효능감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데(이영환, 오미연, 2006), 교육수준이 높으면 부모교육이나 효율적인 양육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많아지게 되므로 강압적인 훈육방식은 점차 줄어들어 감소해 간다고 볼 수 있다(Simons, Beaman, Conger, & Chao, 1993). 또한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경우 첫 아이의 어머니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양육효능감이 점차 증가하여 산후 4-6주에 높은 수준의 유능감을 보고하였고(이은숙, 1987), 영아기 자녀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영아기 자녀의 어머니보다는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가 더 높은 양육효능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연숙, 김영주, 2008). 이와 같이 양육효능감이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양육경험 등의 변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더 많은 교육이나 양육경험을 통해 형성된 부모의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양육효능감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강력한 예측변인임과 동시에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의 질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보고 된다(Coleman & Karraker, 1997; Teti & Gelfand, 1991). 선행연구들은 높은 양육효능감과 적절한 양육행동 및 기술 사이의 관계를 일관되게 지지한다. 예를 들어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들은 실제 그들의 양육행동에서 더 반응적이며 더 많은 자극을 제공하고 덜 체벌적인 특성을 보이며(Donovan & Leavitt, 1985), 자녀와 더 능동적이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며(Mash & Johnston, 1983), 더 높은 수용적 태도를 보인다(Dumka, Stoerzinger, Jackson, & Roosa, 1996). 이와 더불어, 양육효능감은

선행변인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된다.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Teti와 Gelfand(1991)의 연구에 의하면, 양육효능감은 사회적 지지나 배우자의 지지, 혹은 어머니의 우울감 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변인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며 따라서 양육효능감이 통제될 때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변인은 그들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양육효능감은 남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숙재, 1997).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이나 양육효능감에 대한 여러 경험적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양육지식을 바탕으로 하며 이를 통해 실제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즉, 어머니가 부모역할에 대해 갖는 지식은 지식 자체로서 양육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나 지식을 근거로 한 부모역할에 대한 어머니의 자신감 및 효능감을 통해 그들의 구체적인 양육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들 세 변인의 관계를 함께 분석한다면 부모의 양육지식이 어떤 경로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각 변인들의 관계를 함께 분석한 경우가 매우 드물며, 세 변인을 한 연구에서 다른 경우에도 경로를 파악하기 보다는 양육행동에 대한 상대적 설명력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송연숙, 김영주,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지식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들의 양육지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서 양육지식 및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양육효능감 변인을 두 변인 사이의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을 분석하고자 한다(그림 1 참조).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연구문제 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지식 정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가정환경변인과 양육환경변인에 따라 어머니들의 양육지식 및 양육관련 변인(양육효능감,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양육지식이 그들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양육효능감에 의해 매개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시와 광주시에 거주하는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 375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이들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2.0세였으며, 학력은 대졸이 136명(36.3%)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하가 105명(28.0%), 전문대졸이 106명(28.3%), 대학원 이상이 23명(6.1%) 순이었다.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200만원 이하가 응답자의 32.8%였고 201만원에서 400만원의 경우 48.5%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중산층의 경향을 보였다. 자녀수가 2명인 경우가 198명(52.8%)으로 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195명(52.0%) 여아가 177명(47.2%)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에 대한 응답 시 대상자녀의 출생순위는 첫째인 경우가 120명(32.0%) 둘째인 경우가 195명(52.0%)이었다. 연구대상자 중 직장을 가진 어머니는 30.3%(113명)의 비율을 보여 대부분 전업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양육지식

본 연구의 주요변인인 어머니의 양육지식은 MacPhee(1981)의 영아발달 지식 척도(The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KIDD)의 75문항 중 주관식 7문항을 제외한 68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이상적인 영아발달을 위한 자녀양육법에 관한 양육행동지식(12문항)과 영아기 경험의 중요성 및 개인차에 관한 발달원리에 대한 발달과정지식(17문항), 월령에 따른 이상적 발달상태에 관한 발달규준지식(28문항), 그리고 영아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안전지식(11문항) 등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양육행동지식, 발달과정지식, 건강안전지식 문항은 '아기가 배변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따뜻한 우유를 준다' 또는 '아기들은 모두 똑같은 정도의 수면시간이 필요하다' 등과 같은 일련의 양육방법 진술문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발달규준지식의 경우는 '5개월 된 아기는 "아니", "안돼"의 의미를 안다' 또는 '2살된 아기는 성인만큼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등 구체적인 발달연령과 관련된 진술문에 대해 '그렇다', '이전에도 할 수 있다', '이후에 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 문항의 채점기준은 정답일 때 1점, 오답일 때 -1점을 부과하고, '잘 모르겠다'에 표시한 경우에는 점수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각 문항에 대해 얻어진 점수를 합산하여 각 하위 요인의 점수와 총점을 산출하였다. 하위영역별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8~.87의 범위를 보였다.

2)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Giband-Wallston과 Wadnersman(1978)의 양육능력감(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PSOC)을 한국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한 신숙재(1997)의 연구를 바탕으로 2개 하위 요인 총 1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은 인지적 차원의 효능감인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감' 요인과 정서적 차원의 부모능력에 대한 '불안감' 요인으로 구분되며 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0과 .85였다. 본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375)

변인	집단	빈도	%	변인	집단	빈도	%
연령	20대	111	29.5	자녀수	1명	115	30.7
	30대	219	57.4		2명	198	52.8
	40대	18	4.6		3명 이상	62	16.5
학력	고졸이하	105	28.0	자녀성별	남아	195	52.0
	전문대졸	106	28.3		여아	177	47.2
	대졸	136	36.3	출생순위	첫째	120	32.0
	대학원졸	23	6.1		둘째	195	52.0
가정의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	123	32.8	셋째 이하	50	13.3	
취업유무	201-400만원	182	48.5	취업	113	30.3	
	401만원 이상	66	17.4	비취업	260	69.7	

주. 결측치로 인해 빈도의 합이 사례수와 다르며 백분율의 합도 변인마다 차이가 있음.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 Likert 척도이다. 불안감 문항의 경우 역 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기대감은 높고 불안감은 낮아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양육효능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3)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Bornstein *et al.*(1996)의 양육스타일 질문지(Parental Style Questionnaire: PSQ)의 17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PSQ는 사회적 양육행동, 물체지향적 양육행동, 그리고 제한적 양육행동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사회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대인관계적 교환의 정도를 측정하는 8개의 문항을, 물체지향적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모방관찰의 기회와 사건사물에 대한 자극을 주는 정도를 측정하는 6문항을, 그리고 제한적 양육행동은 자녀에게 권위와 규칙을 가르치는 정도를 측정하는 3문항을 포함한다.

응답자는 17개의 문항에 대해 ‘거의 그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나타난 각 영역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각각 .82, .72, .63이었다.

4)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양육환경 변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어머니의 연령, 학력, 직업유무, 가정의 수입 등을 조사하였으며, 양육환경 변인으로는 자녀수, 자녀의 성별, 자녀의 연령, 계획출산여부와 자녀서열(윗형제유무) 등의 질문을 포함하였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7년 5월에서 8월 사이 서울시와 광주시에 있는 소아과, 어린이집, 교회 등에 의뢰하여 편의표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총 55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이중 457부가 회수되었고 최종적으로 375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얻어진 자료들은 SPSS 15.0과 AMOS 5.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 t-test, one-way ANOVA,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양육지식 문항의 하위영역별 점수분포와 평균점수는 <표 2>와 같다. 각 영역별로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양육행동지식이 6.92($SD = 2.9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건강안전지

식($M = 6.25, SD = 2.42$)과 발달규준지식($M = 6.25, SD = 5.17$)이 동일 점수를 보였다. 발달과정지식의 평균점수는 5.87($SD = 3.80$)로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 연구에 참여한 영아기 어머니들의 양육지식이 지식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양육지식 점수

하위영역	점수범위	실제범위	M(SD)
양육행동지식	-12.00~12.00	-3.00~12.00	6.92(2.97)
발달과정지식	-17.00~17.00	-4.00~13.00	5.87(3.80)
발달규준지식	-28.00~28.00	-12.00~20.00	6.25(5.17)
건강안전지식	-11.00~11.00	-1.00~11.00	6.25(2.42)
총합	-68.00~68.00	-5.00~46.00	25.24(10.36)

연구대상자의 양육효능감의 평균점수는 3.38점($SD = .47$)으로 점수범위 1~5점 중 중간 정도였으며, 양육행동의 평균점수 역시 3.64점($SD = .48$)으로 중간 이상의 경향을 보였다(표 3).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특히 사회적 행동 점수($M = 4.01, SD = .55$)가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물체지향적 양육행동($M = 3.09, SD = .64$)을 가장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점수

변인	하위요인	M(SD)
양육효능감	기대감	3.28(.49)
	불안감	3.46(.60)
	전체	3.38(.47)
양육행동	사회적 행동	4.01(.55)
	물체지향적 행동	3.09(.64)
	제한적 행동	3.82(.79)
	전체	3.64(.48)

주. 불안감 문항은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감이 낮은 긍정적 양육효능감을 의미함.

2.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양육환경변인에 따른 양육관련 변인에서의 차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양육환경 변인에 따라 그들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연령, 취업여부, 학력, 그리고 자녀의 서열에 따른 양육지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연령집단은 집단간 사례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40대는 제외하고 20대와 30대의 두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양육지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표 4), 양육지식과 양육행동의 일부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양육지식과 양육행동의 연령차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발달과정지식과 발달규준지식, 그리고 양육지식 전체점수의 경우 20대보다는 30대의 어머니들이 더 정확한 양육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육행동은 사회적 행동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과 전체 양육행동점수에서 30대보다 20대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20대가 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20대의 어머니들이 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30대의 어머니들이 보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양육행동을 평가함에 있어 보다 정확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 4〉 어머니의 연령집단에 따른 양육관련 변인의 차이

변인	하위요인	집단	N	M(SD)	t
양육 지식	양육행동 지식	20대	111	6.52(2.36)	-1.77
		30대	219	7.07(3.20)	
	발달과정 지식	20대	111	4.68(3.25)	-4.66***
		30대	219	6.67(3.84)	
	발달규준 지식	20대	111	5.36(5.01)	-2.20*
30대		215	6.64(5.17)		
건강안전 지식	20대	111	5.93(2.40)	-1.30	
	30대	219	6.29(2.41)		
전체	20대	111	22.69(8.99)	-3.35**	
	30대	215	26.61(10.48)		
양육 효능감	기대감	20대	109	3.31(.51)	1.05
		30대	219	3.25(.48)	
	불안감	20대	108	3.51(.70)	.99
		30대	213	3.44(.52)	
전체	20대	106	3.42(.55)	1.08	
	30대	213	3.36(.42)		
양육 행동	사회적 행동	20대	110	4.06(.59)	1.78
		30대	213	3.95(.53)	
	물체지향적 행동	20대	107	3.24(.67)	2.81**
		30대	213	3.03(.62)	
	제한적 행동	20대	108	3.99(.70)	2.92**
30대		217	3.73(.78)		
전체	20대	116	3.75(.49)	3.07**	
	30대	208	3.58(.46)		

* $p < .05$. ** $p < .01$. *** $p < .00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표 5〉에 의하면, 양육지식의 경우 발달규준지식($t = 3.01, p < .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히 영아의 발달연령과 관련된 규준지식에서 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양육행동의 경우, 전체점수($t = -2.53, p < .05$)와 사회

적 행동($t = -3.66,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물체지향적 행동과 제한적 행동에서는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회적 양육행동과 전반적인 양육행동에 있어서는 비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5〉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관련 변인의 차이

변인	하위요인	집단	N	M(SD)	t
양육 지식	양육행동 지식	취업	113	7.27(2.98)	1.57
		비취업	260	6.75(2.96)	
	발달과정 지식	취업	113	5.84(3.71)	-.06
		비취업	260	5.87(3.86)	
발달규준 지식	취업	111	7.52(5.74)	3.01**	
	비취업	258	5.72(4.83)		
건강안전 지식	취업	113	6.16(2.51)	-.56	
	비취업	260	6.31(2.36)		
전체	취업	111	26.78(10.54)	1.87	
	비취업	258	24.59(10.28)		
양육 효능감	기대감	취업	113	3.30(.44)	.50
		비취업	258	3.27(.52)	
	불안감	취업	112	3.54(.53)	1.92
		비취업	251	3.42(.63)	
전체	취업	112	3.44(.40)	1.65	
	비취업	249	3.36(.50)		
양육 행동	사회적 행동	취업	112	3.85(.52)	-3.66***
		비취업	254	4.07(.55)	
	물체지향적 행동	취업	111	3.06(.67)	-.67
		비취업	251	3.11(.63)	
	제한적 행동	취업	113	3.73(.78)	-1.48
비취업		255	3.86(.79)		
전체	취업	111	3.55(.48)	-2.53*	
	비취업	245	3.68(.47)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양육지식의 전체점수와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더 정확한 양육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달규준지식의 경우 고졸이하($M = 4.14, SD = 4.52$)와 대졸이상($M = 7.93, SD = 5.18$)의 점수 차이가 무려 4.6점 이상으로 나타나 학력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양육효능감의 경우도 전체점수와 하위영역 모두에서 학력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고졸이하에 비해 전문대졸이상의 경우 기대감은 높고 불안감은 낮은 긍정적 양육효능감을 보였다. 양육행동 역시 모든 하위요인과 전체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학력차가 나타났다. 사회적 양육행동과 전체점수에서는 고졸이하와 대졸이상 간에 차이를 보였으며, 물체지향적 양육행동은 고졸이하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이 긍정적인 경향을 보고하였다. 한편 제한적 행동은 전문대졸이 대

학졸업 이상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고하여 하위요인별로 학력에 따른 차이 경향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표 6〉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양육관련 변인의 차이

변인	하위요인	집단	N	M(SD)	F	Scheffé
양육 행동 지식	고졸이하	105	5.19(3.53)	37.38***	a	
	전문대졸	106	6.72(2.66)			b
	대졸이상	159	8.12(2.02)			
발달 과정 지식	고졸이하	105	3.97(4.01)	26.15***	a	
	전문대졸	106	5.70(3.53)			b
	대졸이상	159	7.21(3.30)			
양육 지식	고졸이하	105	4.14(4.52)	18.57***	a	
	전문대졸	106	6.00(5.14)			b
	대졸이상	155	7.93(5.18)			
건강 안전 지식	고졸이하	105	5.37(2.57)	11.31***	a	
	전문대졸	106	6.43(2.35)			b
	대졸이상	159	6.75(2.20)			
전체	고졸이하	105	18.68(11.23)	46.55***	a	
	전문대졸	121	24.85(8.96)			b
	대졸이상	176	29.98(7.95)			
기대감	고졸이하	105	3.15(.47)	5.13**	a	
	전문대졸	104	3.33(.46)			b
	대졸이상	159	3.34(.52)			
양육 효능감	고졸이하	100	3.25(.53)	8.53***	a	
	전문대졸	105	3.49(.66)			b
	대졸이상	156	3.56(.58)			
전체	고졸이하	100	3.21(.43)	9.18***	a	
	전문대졸	103	3.42(.48)			b
	대졸이상	156	3.46(.48)			
사회적 행동	고졸이하	103	3.90(.65)	3.30*	a	
	전문대졸	102	4.10(.51)			b
	대졸이상	158	4.01(.50)			
양육 행동	고졸이하	104	2.93(.64)	4.82**	a	
	전문대졸	103	3.16(.52)			b
	대졸이상	152	3.15(.70)			
제한적 행동	고졸이하	105	3.83(.76)	4.11*	ab	
	전문대졸	106	3.99(.60)			a
	대졸이상	154	3.71(.89)			
전체	고졸이하	102	3.53(.46)	5.13**	a	
	전문대졸	99	3.75(.43)			b
	대졸이상	152	3.64(.51)			

* $p < .05$, ** $p < .01$, *** $p < .001$.

응답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지 둘째이후 자녀인지에 따라 양육관련 변인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표 7), 양육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양육효능감 중 불안감($t = 2.85, p < .01$)과 전체점수($t = 1.99, p < .05$) 그리고 양육행동 중 사회적 행동($t = 2.39, p < .05$)과 물체지향적 행동($t = 2.54, p < .05$)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두 변인 모두에서 첫째자녀인 경우가 둘째이후 자녀인 경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 이전 자녀양육경험이 없는 첫째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더 긍정적인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을 한다고 보고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 자녀서열에 따른 어머니 양육관련 변인의 차이

변인	하위요인	집단	N	M(SD)	t
양육 행동 지식	첫째	120	6.75(3.11)	-0.64	
	둘째 이후	245	6.96(2.94)		
발달과정 지식	첫째	120	5.35(3.77)	-1.8	
	둘째 이후	245	6.14(3.82)		
양육 지식	발달규준 지식	첫째	120	6.37(5.44)	.31
	둘째 이후	241	6.19(5.11)		
건강안전 지식	첫째	120	6.03(2.10)	-1.48	
	둘째 이후	245	6.40(2.58)		
전체	첫째	120	24.49(10.15)	-0.97	
	둘째 이후	241	25.63(10.66)		
기대감	첫째	120	3.28(.54)	.37	
	둘째 이후	243	3.26(.47)		
양육 효능감	불안감	첫째	116	3.58(.66)	2.85**
	둘째 이후	239	3.38(.57)		
전체	첫째	116	3.45(.55)	1.99*	
	둘째 이후	237	3.33(.43)		
사회적 행동	첫째	115	4.10(.53)	2.39*	
	둘째 이후	243	3.96(.56)		
양육 행동	물체지향적 행동	첫째	114	3.20(.68)	2.54*
	둘째 이후	240	3.02(.61)		
제한적 행동	첫째	116	3.74(.77)	-1.23	
	둘째 이후	244	3.85(.80)		
전체	첫째	110	3.70(.47)	1.76	
	둘째 이후	238	3.60(.48)		

* $p < .05$, ** $p < .01$.

3. 양육지식과 양육행동의 관계에 대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양육지식이 양육행동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행동의 세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앞서 각 변인의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양육지식의 모든 하위영역은 양육효능감 중 기대감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불안감과 양육행동지식($r = .19, p < .001$) 및 발달규준지식($r = .16, p < .01$)만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정확한 양육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양육 기대감도 높았으며, 양육지식 중 특히 양육행동 지식과 발달규준지식이 정확할수록 불안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 중 사회적 행동은 양육지식의 하위영역 중 발달규준지식($r = .15, p < .01$) 및 건강안전지식($r = .13, p < .0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반면, 물체지향적 행동이나 제한적 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양육행동은 양육효능감과 $\alpha = .001$ 의 수준에서 $r = .24 \sim .47$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제한적 양육행동은 양육효능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변인	1	1-1	1-2	1-3	1-4	2	2-1	2-2	3	3-1	3-2	3-3
1. 양육지식	1.00											
1-1. 양육행동지식	.66***	1.00										
1-2. 발달과정지식	.72***	.38***	1.00									
1-3. 발달규준지식	.82***	.38***	.34***	1.00								
1-4. 건강안전지식	.58***	.18***	.32***	.35***	1.00							
2. 양육효능감	.21***	.23***	.07	.21***	.04	1.00						
2-1. 기대감	.23***	.19***	.12*	.19***	.14**	.76***	1.00					
2-2. 불안감	.14**	.19***	.02	.16**	-.02	.91***	.43***	1.00				
3. 양육행동	.12*	.06	.01	.12*	.15**	.40***	.44***	.27***	1.00			
3-1. 사회적 행동	.14**	.10	.02	.15**	.13*	.47***	.45***	.36***	.83***	1.00		
3-2. 물체지향적 행동	.09	.08	.01	.06	.09	.24***	.35***	.11*	.80***	.43***	1.00	
3-3. 제한적 행동	-.03	-.09	-.03	-.01	.05	.05	.02	.05	.59***	.28***	.33***	1.00

* $p < .05$. ** $p < .01$. *** $p < .001$.

양육지식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모형(그림 1)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χ^2 값에 대한 유의확률이 .00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χ^2 값은 모형적합도뿐 아니라 표본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모형의 적합도 판단을 위해 CFI와 TLI, 그리고 RMSEA를 선택하였다. 〈표 9〉에 제시한 적합도 지수에 따르면, CFI는 .93, TLI는 .90, 그리고 RMSEA는 .07로써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형이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홍세희,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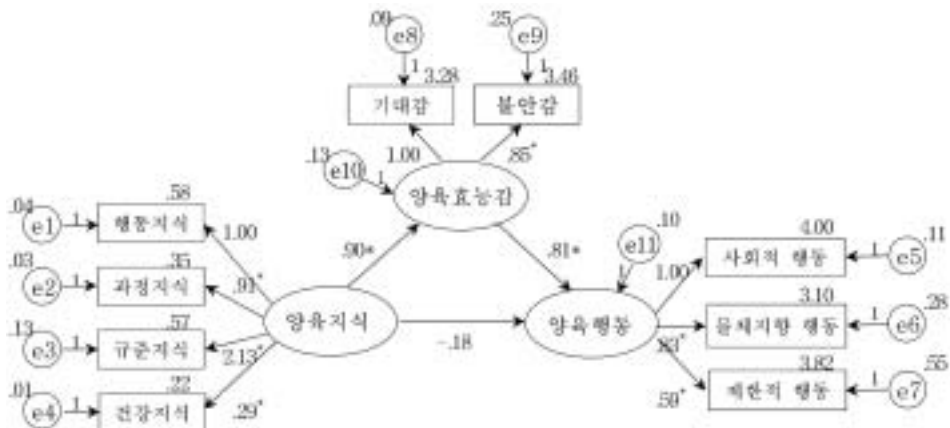
〈표 9〉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지수	χ^2	df	p	TLI	CFI	RMSEA
모형	81.49	24	0.00	0.90	0.93	0.07

〈그림 2〉에 제시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각 변인들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양육지식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는 -.18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육지식은 양육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 = .90$),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도 .8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양육지식이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지는 않지만 양육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양육효능감이 양육지식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양육지식을 설명하고 있는 하위요인들의 요인부하량은 과정지식이 .91, 규준지식 2.13, 건강지식 .29로 나타나, 양육지식을 구성하는 요인 중 규준지식이 가장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양육행동을 구성하는 세 개의 하위요인들의 요인부하량은 물체지향적 행동이 .83, 제한적 행동이 .59로써 사회적 행동이 가장 많은 설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의 요인부하량은 불안감이 .85로 나타나 잠재변인인 양육효능감에 대한 기대감의 설명력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결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양육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고,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양육환경 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양육지식 제공의 필요성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양육지식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양육지식의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적 활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광주시에 거주하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375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양육지식,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및 사회인구학적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SPSS와 AMOS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양육지식은 하위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평균점수로 비교할 때 일반적인 양육행동에 관한 지식점수가 가장 높았고 발달과정과 관련한 지식점수가 가장 낮았다. 양육행동지식은 '아버지들은 원래 아기 돌보기에 서툴다' 혹은 '여자 아기들은 연약하고 더 자주 아파서 남자 아기들보다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등과 같이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방식에 대한 문항들을 포함하는 반면, 발달과정지식은 '어떤 아기들은 안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혹은 '지능점수는 영아기부터 아동기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 등과 같이 영아기 경험의 중요성 및 개인차에 관한 발달원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Macphee, 1984). 이러한 문항내용의 차이를 바탕으로 볼 때, 양육행동 지식점수가 가장 높았던 것은 어머니들이 양육지식을 습득함에 있어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지 등 바람직한 자녀양육 및 훈육법에 대한 정보에 더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영아의 발달 자체에 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덜 집중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따라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양육지식을 제공할 때에는 부모의 역할이나 부모의 구체적인 양육방식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영아의 발달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양육지식 관련 연구들은 본 연구와는 달리 발달영역별로 신체, 인지, 사회, 정서발달에 관한 지식의 정도를 비교한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이들 연구의 결과는 일관되지 않아 양육지식의 하위 영역 중 인지발달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다는 결과도 있고(송연숙, 김영주, 2008; 권경숙, 2008), 정서발달이나 신체발달지식의 점수가 높다는 연구들(윤형주, 조복희, 2004; 이근영 외, 2004; 이원영, 1984)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존 연구들이 사용한 측정도구가 다소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연구대상자의 특성

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화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해당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발달영역 중 영아기 부모들에게 제공될 필요성이 있는 양육지식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제안하며 이를 부모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양육지식을 발달영역이 아닌 지식의 종류 차원에서 측정함으로써 부모들에게 양육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때 양육지식의 발달영역별 차이뿐 아니라 지식의 종류에 따른 차이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양육관련 변인에 따른 양육지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어머니의 연령이 20대 보다는 30대일 때,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더 정확한 양육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서열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양육지식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차이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양육지식 수준을 보인다는 이근영 외(2004)의 연구와 동일하지만 20대와 30대 어머니의 양육지식을 비교한 홍순옥과 김성혜(2008)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직업에 따른 차이는 비취업모의 양육지식이 더 높다는 연구(홍순옥, 김성혜, 2008)나 직업유무와는 관계가 없다는 기존의 연구들(이근영 외, 2004; 최유리, 2006)과 다른 결과이다. 이처럼 연령이나 취업유무 등에 따른 양육지식에서의 차이는 그 결과가 기존 연구들에서도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발달영역별 지식이 아닌 내용별 지식을 측정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양육지식의 보급 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식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학력이나 연령에 따른 양육지식의 차이결과를 반영할 경우, 학력수준이 높은 집단 보다는 낮은 집단에게 그리고 연령이 어린 집단에게 더 많은 정확한 양육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언은 어머니들이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경험적 연구들(Ninio, 1979; Riley & Waterston, 2002)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즉, 저소득층이거나 학력이 낮고 청소년인 어머니들의 경우 친인척이나 이웃에게서 양육지식 및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 반면, 해당 변인에서 반대특성을 가진 어머니들은 책이나 전문가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력이나 연령에 따라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에서 차이가 생기므로 양육지식을 제공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에서는 교육대상자의 학력수준 및 연령 등을 고려한 자료제공이 요구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자녀수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지식을 조

사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자녀수가 많을 경우 이미 양적으로 많은 실제적 양육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육지식의 수준 또한 높을 수 있다(Goodnow, 1984)는 가설을 바탕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자녀수가 아닌 첫째 자녀여부에 따라 양육지식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개인의 양육경험은 양육지식의 양과는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양육지식의 정확성과는 무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넷 등의 발달로 전문화된 정보와 지식에 접근하기 용이해진 현대사회의 시대적 특성을 감안할 때, 첫째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나 지식은 책이나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객관적 지식에 의존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반면, 이전에 다른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은 객관적 지식과 더불어 자신들의 개인적 경험지식에 근거한 다소 주관적인 양육지식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양육지식 면에서는 오히려 다른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없는 어머니들이 더 높은 양육지식 점수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셋째, 양육지식과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정확한 양육지식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양육기대감은 높고 불안감은 낮아 긍정적인 양육효능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확한 양육지식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긍정적인 사회적 양육행동 및 물체지향적 양육행동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제한적 양육행동은 오히려 부정적인 특성을 보고하여, 양육지식과 양육행동과의 관계가 하위영역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육지식과 양육행동의 관계뿐 아니라 구체적인 영역별, 요인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양육지식과 양육행동의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양육효능감은 양육지식과 양육행동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확한 양육지식을 가진 어머니들은 정보와 지식이 없는 어머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양육효능감을 가지며, 높은 양육효능감은 어머니들의 긍정적 양육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 자체로 양육행동에 나타나기 보다는 정확하고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불안감이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적극적이고 민감하게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양육지식과 양육행동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에서 양육지식이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선행연구나 본 연구에서 측정된 양육지식 변인의 조작적 정의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지식을 모두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여기에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영아발달과 적절한 양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따라서 측정에 의해 얻어지는 양육지식은 개별적 양육경험에 의한 지식이 아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양육지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자녀양육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지극히 개별적일 수 있어서 보편적인 양육지식이 실제 상황의 모든 개별 영아에게 완벽하게 적용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머니들의 양육지식이 그들의 양육행동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어머니들이 가지는 양육에 대한 인식과 실제 행동 간의 차이가 양육지식과 양육행동 간의 직접적 영향력 부재로 나타났을 수도 있다. 이는 이상적 양육행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그들의 실제 양육행동과 차이를 보이며(김민정, 2004), 어머니들이 양육에 대해 가지는 신념 및 태도는 실제 양육행동과 관계가 없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Bornstein & Cote, 2003)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양육지식의 하위영역을 고려할 때, 특히 발달규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전체적인 양육지식 점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며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영역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본 연구에서 가장 낮은 양육지식 점수를 보인 발달과정 지식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구체적인 발달연령에서 나타나는 이상적인 영아발달 규준에 대한 정보를 중심으로 양육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들의 양육지식이 양육관련 변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양육지식에 대한 실제적 활용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즉, 양육지식은 자녀양육태도나 행동, 양육스트레스는 물론 실제적인 아동발달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양육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다른 양육관련 변인들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에 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양육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함께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산모교육이나 양육지식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지식교육이 부모의 양육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양육태도를 변화시킨다고 보고한다(곽연희, 이미라, 1996; 조결자, 이군자, 이옥자, 1999; Mann, Pearl, & Behle, 2004). 그러므로 양육지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양육효능감의 향상에 일차적 목표를 두고 양육행동의 변화를 야기하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양

육환경적 특성에 따른 양육행동에서의 차이가 양육관련 정보의 차이때문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생활환경과 주변의 인적, 물적 자원의 특성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지식에 대한 그들의 접근과 이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환경적 특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자녀양육의 차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양육지식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의 측정을 객관적 관찰이 아닌 어머니들의 자기보고식 방법에 의해 평가하였기 때문에 실제적 양육행동을 측정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양육지식과 양육행동에서의 차이분석 결과에 의하면 집단 간 차이에서 그 방향성이 달리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단 간에 양육지식과 양육행동이 다른 경향을 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양육행동을 관찰이 아닌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양육지식을 가진 집단일수록 본인의 양육행동을 평가절하하였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관찰을 통해 실제적인 양육행동을 측정하고 양육지식과 양육효능감이 실제 행동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지식 측정도구는 2세까지의 영아발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응답자의 자녀 월령은 0개월에서 24개월까지 다양하여 자녀의 월령별로 양육지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후속 연구에서는 영아기 자녀의 월령을 세분화한 비교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양육지식의 측정을 발달영역이 아닌 지식의 종류 차원에서 접근하였을 뿐 아니라, 양육지식이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양육지식의 영향력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적인 활용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

■ 참고문헌

곽연희, 이미라(1996). 산모교육의 효과측정: 산육기 자기간호와 신생아 양육에 대한 지식과 자신감을 중심으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2), 246-255.

권경숙(2008). 영아를 양육하는 초보 어머니들의 양육특성과 어려움에 관한 질적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1), 229-255.

김민정(2004). 영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실제 양육행동과 이상적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정화(1999). 영아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기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송연숙, 김영주(2008).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비교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81-203.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윤형주, 조복희(200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가정의 양육환경 및 그 관계성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2), 59-88.

이근영, 장유경, 임현정(2004). 영아모의 자녀양육지식 수준에 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9(1), 45-63.

이영환, 오미연(2006).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양육지식 및 민감성의 비교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9(3), 47-62.

이원영(1984).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유아교육연구**, 5, 101-140.

이은숙(1987). 초산모의 어머니 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수유시 모아상호작용 민감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자, 이승아, 김명희, 김영혜, 박남희(2004). 신생아 부모의 양육지식과 양육자신감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10(3), 262-271.

조결자, 이군자, 이옥자(1999). 신생아 돌보기 교육이 어머니의 자신감과 양육태도에 미치는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5(1), 84-96.

최유리(2006). 어머니의 육아방식 및 양육지식에 관한 연구: 12개월 이하의 첫 자녀를 둔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홍순옥, 김성혜(2008). 어머니의 배경변인에 따른 양육지식과 영아의 상호작용의 관계. **아동학회지**, 29(6), 55-71.

Altman-Klein, H., & Cordell, A.(1987). The adolescent as mother early risk identificat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7-58.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1982). Self-efficacy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yley, N.(1969). *Bayley Scales of Infant Development*. NY: Psychological Corp.
- Benasich, A. A., & Brooks-Gunn, J.(1996). Maternal attitudes and knowledge of child-rearing: Associations with family and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67, 1186-1205.
- Bornstein, M. H., & Cote, L. R.(2003). Cultural and parenting cognitions in acculturating cultur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4(3), 350-373.
-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a, L., Haynes, O. M., Painter, K., Galperin, C., et al.(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 347-367.
- Coleman, P. K., & Karraker, K. H.(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nrad, B., Gross, D., Fogg, L., & Ruchala, P.(1992). Maternal confidence, knowledge, and quality of mother-toddler interaction: A preliminary study.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13, 353-362.
- Donovan, W. L., & Leavitt, L. A.(1985). Simulating conditions of learned helplessness: The effects of interventions and attributions. *Child Development*, 56, 594-603.
- Dumka, L.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 Gecas, V.(1989). The social psychology of self-efficac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5, 291-316.
- Giban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 Goodnow, J. J.(1984). Parent's ideas about parenting and development: A review of issues and recent work. In M. E. Lamb, A. L., Brown, & B. Rogoff. (Eds.), *Advanc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pp 193-242). Hillsdale, NJ: Erlbaum.
- Goodnow, J. J. (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2), 286-320,
- Hunt, J. M., & Paraskevopoulos, J. (1990). Children's psychological development as a function of the inaccuracy of their mothers' knowledge of their abilitie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6, 285-298.
- Larsen, J., & Juhasz, A. (1986). The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 *Adolescence*, 21, 39-54.
- MacPhee, D.(1981). *Manual: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 MacPhee, D.(1984). The pediatrician as source of information about child development.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9(1), 87-99.
- Maloni, J. A.(1994). The content and sources of maternal knowledge about the infant.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22(4), 111-120.
- Mann, M. B., Pearl, P. T., & Behle, P. D.(2004). Effects of parent education on knowledge and attitude. *Adolescence*, 39, 355-360.
- Mash, E. J., & Johnston, C.(1983). Parental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ing self-esteem, and mothers' reported stress in younger and older hyperactive and norma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86-99.
- Miller, S. A.(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 259-285.
- Ninio, A.(1979). The naive theory of the infant and other maternal attitudes in two subgroups in Israel. *Child Development*, 50, 976-980.
- Parks, P. L., & Smeriglio, V. L.(1983). Parenting

- knowledge among adolescent mothe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Care*, 4, 163-167.
- Parks, P. L., & Smeriglio, V. L.(1986). Relationships among parenting knowledge, quality of stimulation in the home and infant development. *Family Relations*, 35, 411-416.
- Phillips, D.(1987). Socialization of perceived academic competence among highly competent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 1308-1320.
- Reich, S.(2005). What do mothers know? Maternal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6(2), 143-156.
- Richman, A., Miller, P., & LeVine, R.(1992). Cultural and educational variations in maternal responsive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614-621.
- Riley, D., Meinhardt, G., Nelson, C., Salisbury, M. J., & Winnett, T.(1997). How effective are age-paced newsletters for new parents? A replication and extensions of earlier studies. *Family Relations*, 40, 247-253.
- Riley, D., & Waterston, T.(2002). Helping teenage mothers with child rearing advice: Report on an intervention. Paper presented at meet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dolescence. London, UK.
- Scheel, M. J., Rieckmann, T.(1998). An empirically derived description of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for parents of children identified as psychologically disordered.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 15-27.
- Seigel, I. E.(1986). Reflections on the belief behavior connection: Lessons learned from a research program on parental belief systems and teaching strategies. In R. D. Ashmore & D. M. Brodzinsky(Ed.), *Thinking about the family: View of parents and children*(pp. 35-65). Hillsdale, New Jersey: Erlbaum.
- Simons, R. L., Beaman, J., Conger, R. D., & Chao, W. (1993). Childhood experience, conceptions of parenting and attitudes of spouse as determinants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91-106.
- Stevens, J. H. Jr.(1984). Child development knowledge and parenting skill. *Family Relations*, 33, 237-244.
- Tamis-Lemonda, C., Chen, L., & Bornstein, M.(1998). Mothers' knowledge about children's plan and language development: Short-term stability and interrel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34(1), 115-124.
- Tamis-Lemonda, C., Shannon, J., & Spellman, M. (2002). Low-income adolescent mothers' knowledge about domains of child development.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23, 88-103.
- Teti, D. M., & Gelfand, D. M.(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in the first year: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접 수 일 : 2009년 4월 1일

심사시작일 : 2009년 4월 3일

게재확정일 : 2009년 4월 30일